

〈일반논문〉

## 唐玄宗의 執權과 擊毬

서영교\*

김은정\*\*

〈목차〉

- I. 머리말
- II. 唐-吐蕃의 화해와 婚姻외교
- III. 擊毬 국제대회와 李隆基의 등장
- IV. 萬騎의 지지와 李隆基의 執權
- V. 맺음말

[국문초록]

어린 시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야 했던 이릉기(玄宗)가 어떻게 중국 역사에서 이름을 남긴 황제가 되었고, 무엇이 그의 파란만장한 운명을 주도하였을까.

693년 그가 7세일 때였다. 할머니 측천무후가 어머니를 죽이고 유기했다. 사라진 모친을 찾다가 그는 황실의 비극에 눈을 떴다. 당시는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밀고로 죽임을 당하는 공포정치 시대였고, 측천무후의 자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황궁은 도살장이었다. 암울한 시대에 소년 이릉기는 격구에 몰입했다.

\* 주저자, 중원대학교 한국어교육문화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중원대학교 축구학과 교수

그가 20세가 되던 해(705)에 정변이 일어나 할머니 측천무후가 연금되고, 큰아버지인 증종이 복위했다. 하지만 위황후와 안락공주 그리고 무삼사가 권력을 농단했다. 707년 8월 위황후 일파가 이릉기의 아버지 상왕(예종)을 모함했고, 주변 사람들의 변호로 겨우 모면했다. 708년 4월 견제를 받은 이릉기와 그의 형제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다.

역사 속에 변화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겨나고, 숨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710년 1월 13일 황궁의 격구장에서 당-토번 시합이 벌어졌다. 몇 판의 시합이 벌어졌고, 토번이 모두 이겼다. 토번인들의 환호 속에서 황제와 선수들(仗內: 금군을 포함한 萬騎)은 수치심을 느꼈다. 4명의 선수가 교체되었고, 거기에는 막상경한 이릉기가 들어 있었다. 그는 결정적인 시점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좌우로 바람(風)과 번개(電)같이 질주하는 그의 속도에 토번 선수 10명 모두가 제압당했다. 그의 움직임과 동작은 사람들을 격동하게 했다.

이릉기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승리를 눈앞에서 구현한 영웅이 되었고, 그를 통해 사람들은 만족감을 얻었다. 이릉기는 황제에게 상금을 받았고, 그의 명망도 올라갔다. 무엇보다 경기를 목격한 북아금군 안의 만기(萬騎: 仗內)에게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710년 6월 2일 위황후가 황제를 독살하고 권력을 잡았다. 백부의 부재에 이릉기의 앞날도 어두워졌다. 하루가 지나 위황후 일파 사람들이 만기의 최고 지도부에 동지를 틀었다. 6월 12일 만기의 중간 간부들이 이릉기를 찾았다. 위황후파 간부들이 군기를 잡기 위해 만기의 병사들을 자주 구타한다고 했다. 이릉기가 거사를 사주한 것이 아니라, 만기의 중간 간부들이 이릉기를 혁명 지도자로 선택했다.

이릉기도 성공이나 실패를 논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황후파의 힘은 강해질 것이다. 지금 당장 존망을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6월 20일 밤 10시에 거사가 시작되었다. 만기의 갈복순 등이 칼을 들고 군영으로 들어가 위선·위파·고승의 목을 뺐다. 이릉기가 거사를 주도한다는 것을 인지한 만기의 병사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갈복순은 좌만기(左萬騎)를 이끌고 가서 현덕문을, 이선부는 우만기(右萬騎)를 거느리고 백수문을 공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능연각 앞에서 합류하였다. 12시 이릉기는 병사를 데리고 입궐했고, 내궁인 태극전에 근무하던 만기 병사들도 혁명

군에 호응하였다. 위황후와 그 일파가 모두 사살되었다.

만기의 협조로 당릉정변은 성공했고, 1일 만에 그들은 이릉기의 휘하에 편입되었다. 궁내부의 무력을 장악한 그는 태자가 되어 조정의 실권자가 되었고, 712년 현종으로 즉위하여, 고모인 태평공주와 그 일파를 제거하고 개원(開元)의 시대를 열었다.

□ 주제어

玄宗, 李隆基, 韋皇后, 擊毬, 萬騎, 王毛仲

## I. 머리말

唐代 擊毬(Polo) 연구의 성과는 적지 않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격구가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린 운동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sup>1)</sup>

구장(毬場)이 수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임백원(林

1) 方協邦, 「唐代體育的歷史地位及影響」, 『青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期, 西寧: 青海師範大學, 1985, 126쪽.

黃中安, 「論唐代的體育活動」, 『人文雜誌』第5期, 西安: 陝西省社會科學院, 1990, 93쪽.

林伯原, 『中國古代體育史』, 臺北: 五洲出版社, 1996, 6章 隋唐時期的體育 2節 擊鞠的興起與發展.

潘孝偉, 「唐代體育動機與體育環境」, 『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安慶: 師範學院, 1992, 60-61쪽.

張寶強·陳小龍·劉晶, 「試論唐代體育文化的開放性特徵」, 『咸陽師範學院學報』23卷-第2期, 咸陽: 師範學院, 2008, 82쪽.

伯原)에 의하면 당(大唐帝國)의 수도 장안성 황궁 내의 함광전(含光殿)·인덕전(麟德殿)·청사전(淸思殿)·중화전(中和殿)·옹화전(雍和殿)·비룡원(飛龍院)·비호원(飛虎院)·용수지(龍首池: 填池爲鞠場)·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의 주둔지인 서원이원정자(西苑梨園亭子) 등에 국장(鞠場)이 만들어져 있었고, 지방인 사주(泗州)·서주(徐州)·개봉(開封)·운주(鄆州)·상산(常山)·항주(恒州)·팽성(彭城)·채주(蔡州)·노주(潞州)·형주(型州)·범양(范陽)·성도(成都)·광주(廣州)·계주(桂州)·둔황(敦煌)·토로번(吐魯番)에 국장(鞠場)이 건설되어 있었다고 한다.<sup>2)</sup>

광서(廣西) 사범대학의 이신국(李新國) 선생은 격구의 성행 원인에 대해 첫째 당 초반 기병력(騎兵力)의 대규모 확충과 강화에 따른 훈련 수요, 둘째 황제들의 격구 애호, 셋째 경제발달에 따른 여가의 확대, 넷째 토번·고려(高麗)·발해(渤海) 등과 외교에 따른 친선대회 수요 등으로 들었다.<sup>3)</sup>

강렬하며, 기창(騎槍)·기사(騎射) 훈련에 가장 효과적인 이 운동은 사람들의 맥박을 뛰게 하는 藥(아편)과 같은 것이다. 관중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경기를 하는 스포츠는 어찌면 인간 의식 심연에 내재한 본능을 자극하는 그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격구의 성행이란 사회적 현상이 당 내부의 정치에 영향을 주었던 적은 없었을까.

필자는 본고에서 격구의 고수 현종(李隆基)<sup>4)</sup>의 집권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릉기는 격구를 평생 즐겼고, 자신을 경호하는 군인(萬騎)들을 시험을 통해 훈련시켰으며, 20대에 토번과 친선경기에 뛰기도 했다. 그가

2) 林伯原, 『中國古代體育史』, 臺北: 五洲出版社, 1996, 217~220쪽.

3) 李新國, 「從《明皇擊球圖》看唐玄宗對馬球運動的喜愛」, 『蘭台世界』 36. 瀋陽: 遼寧省檔案學會, 2014, 120쪽.

4) 『文苑英華』 卷59, 閻寬所撰 溫湯禦毬賦.

范永聰 「唐代球類運動探析」, 『中國史研究』 73, 中國史學會, 2011, 89쪽.

李新國, 「從《明皇擊球圖》看唐玄宗對馬球運動的喜愛」, 2014, 119~120쪽.

통치하던 시기 당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이신국(李新國) 선생이 지적한 격구 유행요인 4가지를 그가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한 그가 쿠테타를 일으켰다.

705년에 큰아버지인 중종(中宗)이 복위하면서 이릉기는 할머니(측천무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얼마 후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睿宗과 그 아들들)은 큰어머니인 위황후와 그 일파의 견제를 받았다. 710년에 6월 2일 중종이 독살되고 위황후가 집권했다. 그로부터 단 18일 후인 6월 20일에 25세의 이릉기가 당릉정변(唐隆政變)에 성공하여 아버지 예종(睿宗)을 복위시키고 자신이 황태자가 되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었다. 이보다 16년 앞서 684년 아버지가 제위(帝位:睿宗)에 오르자 황태자에 임명되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 큰형 이성기(李成器)가 정변의 주도자였다면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이릉기는 3남이고 예종의 측실 두씨(竇氏) 소생이 아닌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의 등장은 갑작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Fitzgerald에 의하면 본래 이릉기는 쿠테타의 도구로 이용된 뒤 태평공주에 의해 제쳐 질 운명이었다고 했다. 첩(妾) 소생의 이릉기는 황위계승 순위도 낮았고, 어떠한 정치적인 야망도 없던 것으로 보이며, 정변의 브레인 은 어디까지나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을 가진 태평공주라고 했다.<sup>5)</sup>

이러한 견해는 후학들에게 재현되었다. Guisso는 당릉정변 당시 25세의 이릉기에게 위위소경이란 벼슬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예종 후궁 소생의 3남으로서 전도유망하지 못했으며, 정변의 실질적인 주도자는 어디까지나 태평공주(太平公主)라고 했다.<sup>6)</sup>

5) C. P. Fitzgerald, *The Empress Wu*, London: The Cresset Press, 1968[1956], pp.204-205.

6) Richard W. L. Guisso, 'The region of the Empress Wu, Chung-tsung and Jui-tsung(684-712)'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3, Cambridge:Uni-

Denis Twitchett도 여기에 일부 동조했다. 그에 의하면 어머니 측천무후의 강한 기질을 물려받은 태평공주는 오빠 중종이 독살되자 다른 오빠 예종이 결국 위황후 일파에 의해 제거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녀가 실패할지도 모르는 음모를 꾸몄다고 한다.<sup>7)</sup> 태평공주에게 힘의 근원이었던 오빠 중종의 급사(急死)는 그녀 영향력의 급감(急減)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가 정변의 주체였다고 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일찍이 사마광(司馬光)은 이릉기가 만기(萬騎) 지지를 받아 집권에 성공했다고 보았다. 중종 말년에 사고가 잦아지자 이릉기가 재력지사(材力之士)를 끌어들이며 준비를 했고, 만기의 호걸들과 두터운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sup>8)</sup>

閻守誠(閻守誠)·吳宗國(吳宗國)도 『신당서』 권134, 왕모중전을 근거로 전부터 이릉기가 만기의 장수들과 호걸을 모아 음식과 비단을 주어 환심을 사서 신임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sup>9)</sup> 앞서 C. P. Fitzgerald도 태평공주의 자금이 정변 성공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10)</sup>

필자는 매수설(說)도 완전히 수긍되지 않는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집안의 그것까지 걸고 역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높은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만기 군인들의 마음에 그분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신뢰를 물

iversity Press, 1979, p.326.

7) Denis Twitchett, 'Hsüan-tsung(reign 712-756)'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335-336.

8) 『資治通鑑』卷209, 景龍 4년(710) 6월 조 “…中宗謂之萬騎, 置使以領之. 隆基皆厚結其豪傑.”

『舊唐書』卷8, 玄宗上 “屬中宗末年, 王室多故, 上常陰引材力之士以自助.”

9) 『新唐書』卷134, 王毛仲傳 “王毛仲, 高麗人. 父坐事, 沒爲官奴, 生毛仲, 故長事臨淄王. 王出潞州, 有李守德者, 爲人奴, 善騎射, 王市得之, 並侍左右, 而毛仲爲明悟. 景龍中, 王還長安, 二人常負房以從. 王數引萬騎帥長及豪俊, 賜飲食金帛, 得其歡心. 毛仲曉旨, 亦布誠結納, 王嘉之.”

閻守誠·吳宗國(저), 임대희·우성민(역), 『당현종』, 서경, 2012, 33쪽.

10) C. P. Fitzgerald, *The Empress Wu*, 1968[1956], p.205.

질로만 살 수 있겠는가?

설사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상당 기간 체류하다 상경한 이릉기에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註 9에서 언급한 『신당서』 권134, 왕모중전을 보면 경룡중(景龍中: 707년 9월~710년 6월) 이릉기가 지방에 체류하다가 상경한 이후 만기의 사람들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하경·상경 시점을 살펴보자. 『구당서』 권8, 현종본기를 보면 “현종(이릉기)이 708년 4월에 노주별가가 되었다(上…景龍二年四月, 兼潞州別駕).”라고 하여, 그때 이릉기가 수도에서 지방 노주(潞州)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다. 『구당서』 현종본기에 “경룡 4년[710]에 이릉기가 증중의 남교제사를 지내려 하자 수도에 왔다([경룡]四年, 中宗將祀南郊, 來朝京師).”라고 하여 710년에 이릉기가 상경했다고 하고 있으나, 『자치통감』 권209를 보면 경룡 3년(709) 11월 13일에 남교제사가 거행되었고, 『구당서』 권110, 왕모중전에 “경룡 3년(709) 겨울에 이릉기가 장안으로 돌아왔다(景龍三年冬, 玄宗還長安).”라고 하여 그가 709년 겨울에 상경했던 것이 확실하다.

이릉기의 사전 작업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었고(6개월 정도),<sup>11)</sup> 그것도 위왕후 일파의 감시를 피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정변이 성공한 것은 결정적인 밑거름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상경 후 행적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당-토번(吐蕃)의 혼인외교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양국의 친선 격구 대회에서 당에 승리를 안긴 이릉기의 등장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가 주도한 정변의 과정에 대해 재음미해 보았다.

11) Denis Twitchett, 'Hsüan-tsung(reign 712-756)' 1979. p.335에서 “710년 이릉기와 그의 동료 왕자들은 제국 전체를 포괄하는 대사면 의식이 될 남교(南郊) 대제사에 참석하도록 수도에 소집되었다. 이때부터 그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목적으로 측근에 학자와 관료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였다.

## II. 唐-吐蕃의 화해와 婚姻외교

705년은 격구사(擊毬史)에 있어 의미 있는 해(歲)였다. 그해 정월에 복위한 중종이 전문 격구장(擊毬場)을 궁내 이원(梨園)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景龍 2년[708] 7월) 上(中宗)이 擊毬를 좋아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風俗으로 서로 높여졌고(相尙), 駙馬인 武崇訓과 楊愼交는 기름을 뿌려서(洒油) 毬場을 축조하였다.<sup>12)</sup>

사마광(司馬光)은 중종이 격구를 좋아하여 그 운동이 당의 풍속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격구가 황제에게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도 좋아했으며, 특히 군인(기병)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다.

한편 위의 기록은 『자치통감』 권209, 경룡 2년(708) 7월 조 실려 있다. 范永聰 선생은 위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당 중종 경룡 2년(708)에 부마 武崇訓(公元685-708年)가 楊愼交(?-公元728年)와 함께 땅 위에 기름을 뿌려 격구장을 건설하였다”라고 하였다.<sup>13)</sup>

그렇지만 격구장 건설에 참여한 무승훈은 707년 7월 6일 중종의 태자 이중준(李重俊)의 정변 때 피살되었다.<sup>14)</sup> 그렇다면 격구장 착공 시점은 중종이 복위한 705년 정월에서 무승훈이 사망한 707년 7월 이전 사이가

12) 『資治通鑑』 卷209, 景龍 2년(708) 7월 조 “上好擊毬, 由是風俗相尙, 駙馬武崇訓·楊愼交洒油以築毬場.”

13) 范永聰, 「唐代球類運動探析」, 『中國史研究』 73, 2011, 89쪽.

14) 『資治通鑑』 卷209, 景龍 元年(708) 7월 6일(辛丑) “太子與左羽林大將軍李多祚·將軍李思沖·李承況·獨孤禕之·沙吒忠義等, 矯制發羽林千騎兵三百餘人, 殺三思·崇訓於其第, 並親黨十餘人.”



되며, 준공 시점이 708년 7월일 수도 있다.

(707)가을 7월 경자일(5일) 황태자 이증준이 우림장군 이다조 등과 함께 羽林千騎兵 300여 인을 이끌고 武三思·武崇訓을 주살하고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肅章門에서부터 문을 부수고[斬關] 들어갔다. 황제가 황급히 玄武樓에 오르자 이증준이 군사를 이끌고 아래에 이르렀는데, 황상이 누각에 나아가 [우림병을] 타이르자 무리가 마침내 흩어져 버렸고, 李多祚를 죽였다. 이증준은 도주하여 [雍州] 鄠縣에 이르렀으나 部下에게 살해되었다.<sup>15)</sup>

태자 이증준의 정변은 국정을 농단해 왔던 증종의 황후 위씨 일파와 이와 결합한 무씨 일파를 일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씨 일파는 멸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변은 실패했고, 이증준은 부하들과 함께 주살되었다.<sup>16)</sup> 무삼사·무승훈이 사라지면서 겉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위황후 파벌은 내상(內傷)을 입었다. 무삼사는 그녀 일파의 섬세한 콘트를 타워였다.<sup>17)</sup>

15) 『舊唐書』卷7, 中宗本紀.

16) 『資治通鑑』卷208, 景龍元年(707) 6월 20일 조를 보면, 태자 증준은 左羽林大將軍 李多祚, 장군 李思沖 등과 함께 羽林千騎兵 300여 명을 이끌고 武三思·武崇訓의 집에 가서 그들을 살해했다. 그러나 中宗·韋后·上官婉兒 측 右羽林大將軍 劉景仁이 이끄는 飛騎 100여 명과 兵部尙書 定楚客, 左衛將軍 紀處訥의 2천 숙위병들이 태자를 살해하고, 함께 거병했던 成王 李千里, 그의 아들 天水王 禧 등도 모두 제거하였다.

17) Richard W. L. Guisso, "The region of the Empress Wu, Chung-tsung and Jui-tsung(684-712)", 1979, pp.324-325에서 "(李重俊)의 쿠데타의 실패와 武三思의 죽음으로 인한 정치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 표면의 밑으로 심화된 조정의 긴장 원천은 睿宗과 太平공주를 중상 모략하고자 하는 安樂공주의 어설픈 시도의 결과로 나타났다. 707년에 그들은 쉽게 그들의 오명을 씻었으나, 안락공주는 어리석게도 太平공주를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무삼사 정책의 근본원리를 무너뜨렸다."라고 하였다.

직후 그해 8월 위황후 일파는 이룡기의 아버지 상왕(相王:睿宗)<sup>18)</sup>을 견제하였고, 얼마 후 상왕의 아들 이룡기와 그 형제들은 수도를 떠나게 되었다. 708년 4월 이룡기는 노주별가(潞州別駕)가 되어 지방으로 내려갔다.<sup>19)</sup> 노주는 현재 산서성 장치시(長治市)이다. 별가는 유유자적하게 봉록을 받는 한가한 직책으로 유폐된 대신과 종실의 사람들을 지방에 안치시키는 자리이다.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709년 11월 13일에 남교에서 거행될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룡기가 상경했다.<sup>20)</sup>

남교제사가 끝나고 2달 후인 710년 1월에 이원 격구장에서 당과 토번의 친선 국제대회가 벌어졌고, 이룡기가 참여하게 되었다.<sup>21)</sup>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격구에 몰입했던 실력자였다. 당(唐) 시대 유행했던 민요에 이룡기를 “삼랑(三郎)은 소시적(少時的)에 옷도 단정하게 입지 않고, 격구(馬球)에 대한 미련 때문에 궁(宮)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었다.”라고 하는데 삼랑은 3남 이룡기의 어린 시절 이름이다.<sup>22)</sup>

양국의 시합은 자존심을 건 승부였다. 과거 당-토번은 처절한 전쟁을 해왔던 적대국이었다. 정확히 말해 토번은 당이 가장 두려워했던 강적이었다.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69년 9월 토번이 당이 소유하던 천산남로를 급습하여 점령했다. 실크로드 경영권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당은 이를 만회해야 했다. 670년 고구

18) 唐의 제5대 및 제7대 황제(662~716). 본명은 李旦. 어머니인 則天武后에 의하여 폐위되었으나, 후에 복위하여 곧 3남 玄宗(李隆基)에게 양위함(재위 684~690, 710~712).

19) 『舊唐書』 卷8, 玄宗本紀 “上神龍元年, 遷衛尉少卿, 景龍二年四月, 兼潞州別駕.”

20) 閻守誠·吳宗國 (저), 임대희·우성민 (역), 『당현중』, 서경, 2012, 26-27쪽.

21) 『封氏聞見記』 卷6, 打毬.

22) 唐代有流行民謠云: “三郎少時衣不整, 迷戀馬球忘回宮.” 當中的三郎, 正是唐玄宗李隆基的小名. 林琳, 「馬球的起源和唐代的馬球運動」 『貴州文史叢刊』 第6期, 貴州省文史研究館, 2000, 11쪽(范永聰 「唐代球類運動探析」, 『中國史研究』 73, 中國社會科學院, 2011, 89쪽에서 재인용).

려 주둔 사령관이었던 설인귀(薛仁貴)가 이끄는 당의 정예병력 11만이 청해호(青海湖) 부근의 대비천(大非川)으로 진군했다. 토번군은 고도에 적응하지 못한 당나라군을 전멸시켰다. 678년 이경현(李敬玄)이 이끄는 당군 8만이 토번을 치기 위해 상습적인 전쟁터가 된 청해(青海)로 향했지만 대부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680년에 가서는 토번이 사천(四川) 서북부의 당 수비군을 몰아내고 요새인 안융(安戎)을 점령하여 사천과 운남(雲南) 변경의 부족들을 그 통제하에 넣었다. 681년에 양비천(良非川: 청해성 共和縣)에서 양군의 충돌이 있었고, 682년에 토번이 사천의 자주·송주·익주(柘州·松州·翼州)를 약탈했으며, 청해호 서쪽에 위치한 하원군(河源軍)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토번의 광범위한 대공세는 당의 병력을 서쪽에 묶어놓았고, 독립을 갈망하던 동돌궐의 재기를 도왔다. 683년 아사나골돌룩(阿史那骨咄祿)이 몽골고원에 제2 돌궐제국을 세웠다.

689년 측천무후가 위대가(韋待價)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토번을 치게 하였다. 기록은 결과를 이렇게 전한다. “위대가(待價)는 본래 군대를 통솔할만한 재주가 없었는데 이때 낭패를 보아, 사졸은 기근에 고생하다 모두 죽고 그 시신이 구덩이를 전전했다.”<sup>23)</sup>

얼마 후 당이 대규모 반격을 했다. 692년 왕효걸(王孝傑) 휘하의 정예 부대 금아군(金牙軍) 30만이 타림분지의 안서(安西) 4진으로 진군했다. 10월 10일에 안서 4진(龜茲·于闐·疏勒·碎葉)을 당이 점령하여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 최초의 승리였다.

하지만 695년 당이 북방의 동돌궐 토벌을 위해 대군을 통원하자, 토번의 가르친링(論欽陵)은 임조(臨洮: 甘肅省 臨洮縣)로 쳐들어와 당군을 격파했다. 그러자 당 조정은 금아군 30만을 투입했다. 7월 압도적으로 당군

23) 『舊唐書』 卷196, 吐蕃傳.

이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토번군은 무너지지 않았다. 696년 정월 토번군이 장안 200마일 이내 지점까지 진격해왔다. 측천무후는 병력 10만을 증파했다. 3월 농우도 조주(洮州) 소라한산(素羅汗山)에서 혈전이 벌어졌고, 당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였다. 당의 위세가 크게 실추되었다.

그러나 반전은 토번 내부에서 일어났다. 699년 2월 토번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던 같이씨(mGar) 무신정권이 토번의 국왕(贊普) 기노실농(器弩悉弄)의 친위 쿠데타로 붕괴되었다. 그것은 군의 전력 약화로 이어졌다. 703년 토번의 국왕이 티벳고원 남쪽 변경 부족들의 반란을 직접 진압하러 갔다가 전사했다. 태후와 재상이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705년 이후 내적인 어려움이 생겨나면서 토번이 당과 평화를 원하게 되었고, 양국은 국혼으로 협정을 맺게 되었다.<sup>24)</sup>

(당중종 경릉 3년[709] 11월) 乙亥日(23일) 토번의 贊普가 그의 대신인 尙贊咄 등 1천여 명을 파견하여 金城公主를 맞이하게 하였다.<sup>25)</sup>

당시 토번의 국왕(贊普)은 이름이 기예축찬(棄隸踏贊)으로 14세의 소

24) 이상의 당과 토번의 관계에 대해서 아래의 글들을 참고했다.

左藤長, 「〈論說〉金城公主の入藏について」(上), 『史林』 39(1), 京都大史學研究會, 1956, 1, 68-82쪽.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Kao-tsung(649-683) and the Empress Wu',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285-286.

Helmut Hoffman, 'Early and Medieval Tibet'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Univ Press, 1990.

Richard W. L. Guisso, 'The region of the Empress Wu, Chung-tsung and Jui-tsung(684-712)', 1979, pp.311-314.

鄭炳俊, 「吐蕃의 吐谷渾 併呑과 大非川 戰鬪」, 『歷史學報』 218, 2013, 309-340쪽. 서영교, 『고대 동아시아 세계대전』 글항아리, 2021[개정판] 저자후기.

25) 『資治通鑑』 卷209, 景龍 3년(709) 11월 23일.

년이였다. 698년에 태어난 금성공주는 당시 11살에 불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고종과 측천무후 사이에서 태어난 장희태자 이현(李賢)의 아들 이수례(李守禮)이다. 혈통으로 본다면 당고종의 증손녀이자 장희태자 이현의 손녀인 금성공주는 앞서 641년 토번으로 시집을 간 문성공주(文成公主)보다 고귀하다.

상찬돌(尙贊咄)을 단장으로 하는 토번 사절은 1천 명의 규모였다. 그 안에 擊毬에 능한 선수들이 있었다.

“(경룡) 4年(710) 正月 乙丑(13일) 吐蕃使를 위해 苑内の 球場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중종이) 駙馬都尉 楊慎交에 명하여 吐蕃使와 打球를 하게 하였다. 帝는 侍臣을 거느리고 그것을 구경했다.<sup>26)</sup>

710년 정월 13일(음력) 황제가 토번 사절단을 위한 연회를 원내(苑內) 격구장에서 베풀었다. 중종이 토번과 격구 시합을 개최할 의도가 있었다. 양국 선수들 사이의 경기가 벌어졌다. 위의 기록에는 당의 대표 선수로 부마인 양신교(楊慎交)만 보인다. 그리고 황제가 侍臣을 거느리고 시합을 구경했다고만 하고, 승패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 『구당서』 토번전도 역시 그러하다.<sup>27)</sup>

26) 『冊府元龜』 卷110, 帝王部 宴享2 “(경룡)四年正月乙丑宴吐蕃使于苑內球場命駙馬都尉楊慎交與吐蕃使打球帝率侍臣觀之.”

27) 『舊唐書』 卷196, 吐蕃傳 “景龍三年十一月, 又遣其大臣尙贊咄等來迎女, 中宗宴之於苑內球場, 命駙馬都尉楊慎交與吐蕃使打球, 中宗率侍臣觀之.” 토번 사절단이 장안에 도착한 것이 709년 11월이고(『資治通鑑』 卷209, 景龍 3년(709) 11월 23일), 苑内の 球場에서 격구대회가 벌어진 것은 710년 정월 13일이다(『책부원구』 권110, 제왕부 연향2).

### Ⅲ. 擊毬 국제대회와 李隆基의 등장

하지만 당-토번 국제대회에 관한 보다 상세한 기록이 『봉씨문견기』 권6, 타구 조에 있다.

景雲 연간(710~712)에 吐蕃이 사신을 파견하여 金城公主를 맞이하러 왔을 때, 中宗이 梨園亭子에서 타구 경기를 관람하도록 해주었는데, 토번의 贊咄이 아뢰었다. 신의 部曲에 타구를 잘하는 자가 있으니, 漢(중국)과 겨뤄보길 청합니다.

황상이 호위병(仗內)에게 겨루게 했는데, 몇 판을 대결했지만 토번이 모두 이겼다. 당시 현종(玄宗)이 臨淄王으로 있었는데, 중종은 또 그와 함께 嗣虢王 李邕, 駙馬 楊慎交, 武秀 등 4명에게 토번의 10명과 대적하라고 했다. 현종(臨淄王)이 동서로 말을 몰아 돌진하자 바람이 일고 번개가 치는 듯하여 향하는 곳마다 앞에 아무도 없었다. 결국 토번은 승리를 얻을 수 없었다. 그 都滿贊咄(상찬돌)은 당나라의 僕射와 같은 벼슬이다. 중종이 매우 기뻐하며 현종 등에게 強明絹 수백 段을 하사했으며, 학사 沈佺期和 武平一 등이 모두 시를 지어 바쳤다.<sup>28)</sup>

먼저 위 『봉씨문견기』에 대한 약간의 고증이 필요하다. 시점을 경운 연간(710~712)이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오이다. 경운은 710년 7월에서

28) 『封氏聞見記』卷6, 打毬 “景雲中, 吐蕃遣使迎金城公主, 中宗於梨園亭子賜觀打毬. 吐蕃贊咄奏言: 臣部曲有善毬者, 請與漢敵. 上令仗內試之, 決數都, 吐蕃皆勝. 時玄宗爲臨淄王, 中宗又令與嗣虢王邕·駙馬楊慎交·武延秀等四人, 敵吐蕃十人. 玄宗東西驅突, 風回電激, 所向無前. 吐蕃功不獲施, 其都滿贊咄猶此僕射也. 中宗甚悅, 賜強明絹數百段, 學士沈佺期·武平一等皆獻詩.”

712년 5월까지인데 토번 사절단이 금성공주를 모시고 710년(景龍 4년) 정월 25일(丁丑)에 장안을 뒤로하고 토번으로 향했기 때문이다.<sup>29)</sup> 『책부원구』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710년 1월 13일에 국제경기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다음으로 위 기록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경룡문관기(景龍文館記)』의 저자 무평일(武平一)이 경기를 관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경룡 연간 장안 궁정에서 벼슬을 하면서 목격한 사건들을 편년체의 책으로 남겼다. 지금은 사라지고 파편화된 일문(逸文)만 남아 있다. 『장안의 봄(長安의春)』의 저자인 이시다 미키노스케(石田幹之助)는 『봉씨문견기』의 찬자가 『경룡문관기』를 참고했다고 보고 있다.<sup>30)</sup>

마지막으로 격구 경기에 뛰어든 선수 가운데 하나인 사괭왕(嗣虢王) 이옹(李嶷: 687-727)의 무덤에서 격구 벽화가 발견되면서 『봉씨문견기』의 신빙성이 높아졌다.

2004년 산서성 부평(富平) 당고조 이연(李淵)의 현릉 구역에서 출토된 벽화의 주인 이옹은 이연의 15남 이봉(李鳳)의 계승자이다. 또한 그는 백제 의자왕의 증손녀 부여태비(夫餘太妃: 후처)의 부군이기도 하다. 벽화 발견 후 사람들은 당-토번 격구대회에 참여했던 그의 모습을 재삼 떠올리고 있다.

말은 머리와 목의 무게가 전체 하중의 50%이기 때문에 본래 앞다리 힘이 강하다. 그런데 위의 그림을 보면 말의 앞다리는 떠 있고, 뒷다리가 지면에 닿아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 말의 뒷다리 힘을 그만큼 키웠다는 것을 말해주며, 선수가 자신의 무게를 이용하여 정지 또는 연속적인 기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9) 『資治通鑑』 卷209, 景龍 4년(710) 정월 丁丑(25)일 조.

金芝盈, 『『封氏聞見記』 試論 및 校釋 研究』, 연세대 중문과 석사논문, 2016.

30) 이시다 미키노스케(저), 이동철·박은희(역), 『장안의 봄』, 이산, 2004, 81쪽.





嗣虢王李邕擊毬圖: 727년 직후의 작품

말과 소통이 선수에게 내면화되어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감정을 소유한 말을 장비로 사용하는 승마는 기수와 말의 정신적 일치를 요구한다. 정신적 일치는 프로이트(Freud, 1856~1939)가 주장하는 생명을 향한 욕구로서 무아지경의 경지를 뜻한다. 이 수준에 이르면 기승자는 말의 향후 행동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 말의 행동에 효과적인 대응은 물론 말과 절묘한 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신적 일치는 기승자가 말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사료로 돌아가자. 위의 『봉씨문견기』와 『책부원구』 제왕부 연향을 비교해 보면 이원정자(梨園亭子)가 격구장의 관람 시설인 것이 드러난다. 중종이 연회 자체를 그곳에서 개최하여 토번 사절단에게 격구 경기를 관전하게 하려 하였다. 토번의 정사(正使) 상찬들은 자신의 부곡(部曲)에 격구 선수가 있다고 하면서 황제에게 양국의 시합을 제안했다. 황제가 출전시

31) 남병근, 「기림마 인마일체를 위한 승마 역학적 분석」, 단국대 박사논문, 2005, 35쪽.



킨 선수들은 북아금군(北衙禁軍) 안의 만기(萬騎)로 구성된 장내(仗內)들이었다.

토번의 사절 1천이 모두 구장 연회에 참석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용공 수백만(數百萬) 사람이 동원되어 건설된 대형 구장에<sup>32)</sup> 들어찬 사람들은 많았을 것이고, 황제를 호위하는 경호원의 수와 의장의 수려함도 상대방의 규모와 그 정도에 비례했을 것이다.

황제가 자신을 호위하던 장내(仗內: 만기를 포함한 북아금군) 병사들을 출전시켰다. 그와 종친들 그리고 대소신료와 만기들이 관전하는 시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 선수들은 토번 선수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초반부터 패배했고, 다음 판에서도 그러했다. 황제와 그 이하 사람들의 자존감이 추락했다.

그러자 황제는 이릉기(臨淄王)와 사궐왕 이웅, 부마 양신교, 무연수(武秀) 등 4명에게 토번 선수와 대적하라고 특명을 내렸다. 이릉기의 활약이 특출났다. 그가 “동서로 말을 몰아 돌진하자 바람이 일고 번개가 치는 듯 하여 향하는 곳마다 앞에 아무도 없었다.” 이 기록에서 세상 모든 걸 다 뚫어버릴 기세로 달려 기어이 골을 넣어버리는 장면이 연상된다.

이릉기가 좌우로 선회하면서 토번 선수들을 제치고 나아갈 때 관중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이 단체로 일어서 환호를 지르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그가 토번 선수 10명 모두를 스피드로 제치고, 침착하게 골을 넣을 때마다 관중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했을 것이다.

그의 활약으로 당이 토번을 누르고 승리하였다. 사람들은 토번을 꺾는 당 선수를 보지 못할 줄 알았을 것이다. 전쟁기계 토번의 침략에 40년간

32) 『冊府元龜』卷306, 外戚部 奢縱專恣驕慢奢縱 “唐楊慎交向中宗女長寧公主爲駙馬都尉與武崇訓等 各將油灑地以築球場 用功數百萬妨害農務斂怨於人.” 『隋唐嘉話』卷下, “景龍中, 妃主家競爲奢侈, 駙馬楊慎交·武崇訓, 至油灑地以築球場.”

시달려 왔던 당이었다. 언제나 적대적 감정이 상존한 국가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는 영웅으로 찬양되는 법이다. 승리는 사람들의 국가 의식과 정체성을 고취하고, 일체감을 조성하여 통합을 이룬다.

이렇기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백부인 황제에게 많은 비단을 상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큰 선물은 그의 명망 상승이었다. 앞으로 위황후파는 그를 경계하겠지만, 직전 토번에 패배한 후 그 경기를 목도한 북아급군의 만기(仗內)는 완전히 달랐으리라. 710년 6월 20일에 일어난 당릉정변의 결과를 고려할 때 이보다 6개월 전인 토번에 대한 격구 승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 날인 710년 정월 14일(丙寅) 장안은 축제 분위기였다. 밤에 황제가 위황후와 함께 궁녀들을 거느리고 장안의 거리에 나타났다. 그들은 등불을 구경하였다. 황제는 궁녀 수천 명을 풀어 놓아 나아가 놀게 하였다.<sup>33)</sup>

그렇지만 얼마 후 황제가 권력을 휘둘렀던 위황후와 그 일파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일의 발단은 그해 4월에 시작되었다. 하북성 정주(定州) 사람 낭급(郎岾)이 황제에게 위황후와 그녀의 근신 종초객(宗楚客)이 장차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했다. 위황후는 그를 때려서 죽이게 했다(杖殺). 5월 17일 허주(許州)의 사병참군(司兵參軍)인 연흠용(燕欽融)이 위황후와 딸인 안락공주(安樂公主)가 종묘와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고 상주했다. 황제는 그를 불러 마주 앉았지만 침묵했다. 그러자 종초객이 비기(飛騎)를 시켜 그를 높은 곳에서 밀어 돌 위에 떨어지게 했고, 목이 꺾여 죽었다. 사건의 전말은 소문을 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다.

목숨을 지불하고 간언을 한 두 사람으로 인해 황제의 심경에 변화가 왔다. 위황후와 그 일파에 대해 황제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6월 2일 불난

33) 『資治通鑑』 卷209, 景龍 4년(710) 정월 丙寅(14)일 “春, 正月, 丙寅夜, 中宗與韋後微行觀燈於市裏, 又縱宮女數千人出遊, 多不歸者.”

해진 위황후는 안락공주와 모의하여 증종을 독살했다.<sup>34)</sup>

6월 3일 위황후는 가장 먼저 수도와 황궁의 군권을 장악했다. 여러 관부의 병사 5만 명을 징발하여 수도에 주둔시키게 하고, 부마 위첩(韋捷)·위관(韋灌)·위위경(衛尉卿)인 위선(韋璿)·좌천우중랑장(左千牛中郎將)인 위기(韋錡)·장안령(長安令)인 위파(韋播)·낭장(郎將)인 고숭(高嵩) 등이 나누어 관장하도록 했다. 중서사인(中書舍人) 위원(韋元)이 좌위육가(左右六街)를 순찰하게 하였다. 다음날인 6월 4일에 증종의 서거가 공표되었다. 16세의 온왕(溫王) 이증무(李重茂)를 허수아비 황제로 올리고 위황후가 섭정이 되면서 연호를 당릉(唐隆)으로 개원했다. 황후의 오빠 위온(韋溫)이 총지내외수척병마사(總知內外守捉兵馬事)가 되었다.<sup>35)</sup>

34) 『資治通鑑』 卷209, 景龍 4년(710) 4월·5월·6월 조“(4월) 乙未, 上幸隆慶池, 結彩爲樓, 宴侍臣, 泛舟戲象以厭之. 定州人郎岌上言: 韋後·宗楚客將爲逆亂. 韋後白上, 杖殺之. 五月, 丁卯, 許州司兵參軍偃師燕欽融複上言: 皇後淫亂, 幹預國政, 宗族强盛; 安樂公主·武延秀·宗楚客圖危宗社. 上召欽融面詰之. 欽融頓首抗言, 神色不撓; 上默然. 宗楚客矯制令飛騎撲殺之, 投於殿庭石上, 折頸而死. 楚客大呼稱快. 上雖不窮問, 意頗快快不悅; 由是韋後及其黨始憂懼. 己卯, 上宴近臣, 國子祭酒祝欽明自請作《八風舞》, 搖頭轉目, 備諸醜態; 上笑. 欽明素以儒學著名, 吏部侍郎盧藏用私謂諸學士曰: 祝公《五經》, 掃地盡矣! 散騎常侍馬秦客以醫術, 光祿少卿楊均以善烹調, 皆出入宮掖, 得幸於韋後, 恐事泄被誅; 安樂公主欲韋後臨朝, 自爲皇太女; 乃相與合謀, 於餅談中進毒. 六月, 壬午, 中宗崩於神龍殿.”

35) 『資治通鑑』 卷209, 景龍 4년(710) 6월 조“六月, 壬午… 韋後秘不發喪, 自總庶政. 癸未, 召諸宰相入禁中, 征諸府兵五萬人屯京城, 使駙馬都尉韋捷·韋灌·衛尉卿韋璿·左千牛中郎將韋璿·長安令韋播·郎將高嵩等分領之. 璿, 溫之族弟; 播, 從子; 嵩; 其甥也. 中書舍人韋元微巡六街.”

#### IV. 萬騎의 지지와 李隆基의 執權

710년 6월 12일 만기(萬騎)의 중간 지휘관인 갈복순(葛福順)과 진현례(陳玄禮)가 이릉기를 직접 찾았다.

韋播·高嵩이 자주 萬騎를 매질하고 채찍질하여 위엄을 세우려 하니 萬騎가 모두 원망하였다. 果毅인 葛福順·陳玄禮이 직접 (臨淄王) 隆基를 찾아와서 하소연하였다. 隆基가 여러 韋씨들을 죽일 것을 언지시 알리니 모두 기뻐서 뛰며 죽음으로써 스스로 힘쓰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萬騎의 果毅인 李仙臯도 역시 其謀에 참여하였다.<sup>36)</sup>

갈복순과 진현례가 이릉기에게 하소연하였다. 불과 8일 전에 만기(萬騎)의 간부로 임용된 위파와 고숭이 병사들을 매질한다는 것이다. 새로 부임한 장군들은 병사들을 구타하여 군기를 잡으려고 했고, 여기에 만기(萬騎) 병졸 전체가 반감을 품었다. 이릉기에게 결정적인 정보였다. 위황후와 그 일파 제거에 이릉기가 동의하자 갈복순과 진현례 모두가 기뻐서 뛰며 죽음을 다해 힘쓰게 해달라고 청했다. 이릉기가 사주를 한 것이 아니라 만기(萬騎)가 그를 선택한 것이다.

中宗이 그들을 이르기를 萬騎라고 하고, 사자를 두어 그들을 다스렸다. 李隆基는 모두 두텁게 그 豪傑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sup>37)</sup>

36) 『資治通鑑』 卷209, 景龍 4년(710) 6월 12일 “韋播·高嵩數榜捶萬騎, 欲以立威, 萬騎皆怨. 果毅葛福順·陳玄禮見隆基訴之, 隆基諷以誅諸韋, 皆踴躍請以死自效. 萬騎果毅李仙臯亦預其謀.”

37) 『資治通鑑』 卷209, 景龍 4년(710) 6월 12일 조.

이릉기가 만기(萬騎)와 두터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점은 그가 토번과의 시합에서 기량을 발휘하여 이름을 알린 710년 정월 13일 이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 먼저 접촉을 시도했는지의 사실 여부보다 격구 영웅 이릉기는 사람들이 이상화할 수 있는 존재였고, 만기(萬騎)의 선택을 받을 만한 카리스마 소유자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만기(萬騎)의 군인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걸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인물이었다. 복종하라고 구타하는 위황후파 장군들과 반대였다.

李隆基는 마침내 太平公主와 그녀의 아들 衛尉卿 薛崇暎·苑總監 贛人 鍾紹京·尙衣奏禦 王崇曄·前朝邑尉 劉幽求·利仁府와 折冲인 麻嗣宗과 더불어 사전 모의하여 먼저 그들(韋皇后 파)을 죽이기로 했다.<sup>38)</sup>

이릉기가 고모인 태평공주(太平公主)의 지지를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주는 어머니 측천무후가 권력을 잡고 정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상담자였으며, 705년 무후가 병이 들자 남총(男寵)인 장역지(張易之) 형제를 주살하는 정변에 관여해 공을 세웠다. 어머니 측천무후를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오빠 중종을 복위시킨 주역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sup>39)</sup>

공주는 권모술수에 능한 여걸이었다. Guisso에 의하면 태평공주는 그녀를 포함하는 위황후 일파에 대한 반격을 위해 개인적인 지지 세력을 꾸준히 구축하는 한편 709년 중반부터 위황후와 공주의 나쁜 행실에 대하여 그녀의 오빠인 중종이 의심하도록 부추겼다고 한다.<sup>40)</sup>

그녀 힘의 원천인 중종이 죽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기꺼이 20대의

38) 『資治通鑑』 卷209, 景龍 4년(710) 6월 12일 조.

39) 『舊唐書』 卷183, 太平公主傳.

40) Richard W. L. Guisso, 'The region of the Empress Wu, Chung-tsung and Jui-tsung(684-712)', 1979, p.326.

어린 조카에게 자신과 집안 전체의 운명을 걸었다.<sup>41)</sup>

710년 6월 20일 오후 신시(申時) 이릉기는 황성 북쪽에 궁원성(宮苑城)에 혁명지휘부를 차렸다. 그곳은 원총감(苑總監) 종초경(鍾紹京)이 관할하던 곳이었다. 밤이 되자 만기(萬騎)의 과의 갈복순과 이선부가 이릉기에게 찾아와 결단을 내려주기를 청했다. 밤 10시에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福順이 칼을 빼고 羽林營으로 바로 들어가, 韋瑒·韋播·高嵩을 참하고 (저기에 있던 부하들에게) 말했다. 韋皇后가 돌아가신 先대 황제를 독살하고 모의하여 社稷을 위태롭게 하였으니. 오늘 저녁 여러 韋씨들을 함께 죽이는데, 馬채찍을 친 사람 이상은 모두 목을 베고 相王을 세워 天下를 편안하게 하여야 한다. 감히 두 마음을 먹고 逆黨을 돕는 자는 죄가 삼죽에 미친다. 羽林의 무사들이 모두 기쁘게 명령을 따랐다.<sup>42)</sup>

궁원성을 나온 갈복순과 이선부가 현무문 앞 우림군영 앞에 도착하여 칼을 뽑았다. 그리고 바로 내부로 들어가 위선·위파·고승의 목을 뺐는데 누구도 저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갈복순은 병사들을 모아 놓고 연설을 했다. 먼저 위황후와 그 일파가 짜고 선대 황제를 독살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것은 만인의 비밀이었다. 그리고 황제를 시해한 위황후와 그 일파를 주살하고, 이릉기의 아버지 상왕을 세워 천하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하며 거사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릉기가 정변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무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모두 동의했다. 이릉기는 아주 순조롭게 현무문을 지키는

41) 『舊唐書』卷8, 玄宗上“上益自負, 乃與太平公主謀之, 公主喜, 以子崇簡從.”

42) 『資治通鑑』卷209, 景龍 4년(710) 6월 20일 조.

우림군을 장악했다. 아니 군인들이 기꺼이 그를 따랐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sup>43)</sup>

3개의 머리(首)가 배달되었고, 그것을 확인한 이릉기는 유유구 등과 함께 궁원성의 남문을 나섰다. 그의 뒤에는 종소경이 인솔하는 도기와 톱으로 무장한 장정 200명이 따랐다. 갈복순은 좌만기(左萬騎)를 이끌고 가서 현덕문(玄德門)을 공략하였고, 이선부는 우만기(右萬騎)를 인솔하여 백수문(白獸門)을 공격하였다. 둘은 능연각 앞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즉시 크게 함성을 지르며 수문장들을 죽이고 입궐하였다.<sup>44)</sup>

이릉기는 장정 200명(勤兵)과 현무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2시(三鼓)가 되어 함성을 듣고 병사들과 함께 궁내로 진입하였고, 태극전 앞에 근무하던 제위(諸衛)인 비기(飛騎)와 만기(萬騎) 병사들이 함성을 듣고 모두 이에 호응하였다.<sup>45)</sup> 위황후는 당황하여 비기(飛騎)의 병영으로 도주했다. 비기(飛騎) 병사 하나가 이릉기가 거사를 일으킨 것을 알고 그녀의 목을 베어 바쳤다.<sup>46)</sup> 황후의 딸인 안락공주가 거울 앞에서 눈썹을 그리고 있다가 머리가 잘렸다. 만기(萬騎)는 숙장문(肅章門) 밖에서 무연수

43) 『冊府元龜』 卷20, 帝王部 功業 “羽林軍士相率來應 無有拒者”

44) 『資治通鑑』 卷209, 景龍 4년(710) 6월 20일 “福順拔劍直入羽林營, 斬韋璿·韋播·高嵩以徇, 曰: 韋後鳩殺先帝, 謀危社稷. 今夕當共誅諸韋, 馬鞭以上皆斬之! 立相王以安天下. 敢有懷兩端助逆黨者, 罪及三族!” 羽林之士皆欣然聽命. 乃送璿等首於隆基, 隆基取火視之, 遂與幽求等出苑南門, 紹京帥丁匠二百餘人, 執斧鋸以從. 使福順將左萬騎攻玄德門, 仙臈將右萬騎攻白獸門, 約會於凌煙閣前, 即大噪, 福順等殺守門將, 斬關而入.”

45) 『舊唐書』 卷8, 玄宗本紀 “衆歡叫大集, 攻白獸·玄德等門, 斬關而進, 左萬騎自左入, 右萬騎自右入, 合於凌煙閣前. 時太極殿前有宿衛梓宮萬騎, 聞噪聲, 皆披甲應之. 韋庶人惶惑走入飛騎營, 爲亂兵所害. 於是分遣誅韋氏之黨, 比明, 內外討捕, 皆斬之.” 『冊府元龜』 卷20, 帝王部 功業 “時梓宮在太極殿 殿前有諸衛飛騎萬騎宿衛聞喊聲 皆披甲應之.”

46) 『冊府元龜』 卷20, 帝王部 功業 “皇后韋氏惶惑走入飛騎營 中有一飛騎知帝舉兵 遂斬首以送”

(武延秀)를 주살했고, 태극전 서쪽에서 여성 장군 하루씨(賀婁氏)를 사살했다.<sup>47)</sup>

거사가 성공했다. 저항은 미미했다. 현덕문과 백수문을 지키는 수비대의 일부만 항거했고 금방 진압되었다.

내궁에 숙위하던 비기(飛騎)와 만기(萬騎)의 내응이 정변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쉬다. 거사 날짜를 6월 20일 밤으로 잡은 것은 그날 갈복순·이선부·진현례가 외궁·내궁에서 동시 근무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6월 12일 갈복순과 함께 이릉기를 알현했던 진현례(陳玄禮)가 거사 날 내궁의 병력을 장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궁궐과 장안성은 물론이고 두곡(杜曲: 섬서성 장안현 동남)에 거주하는 위씨들이 거의 모두 주살되었다. 6월 21일 사면이 있었다. “역적 괴수가 이미 주살되었으니 나머지 걸가지인 무리는 하나같이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인사가 단행되었다.

是日, … 臨淄王 隆基를 平王으로 삼고, 兼知內外閑廐으로 左右廂萬騎를 맡게 하였다. 薛崇暎에게 爵을 주어 立節王으로 하였다. 鍾紹京은 守中書侍郎, 劉幽求是 守中書舍人으로 하여 나란히 비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麻嗣宗은 行左金吾衛中郎將으로 삼았다.<sup>48)</sup>

47) 『資治通鑑』 卷209, 景龍 4년(710) 6월 20일 “隆基勒兵玄武門外, 三鼓, 聞聲, 帥總監及羽林兵而入, 諸衛兵在太極殿宿衛梓宮者, 聞噪聲, 皆被甲應之. 韋後惶惑走入飛騎營, 有飛騎斬首獻於隆基. 安樂公主方照鏡畫眉, 軍士斬之. 斬武延秀於肅章門外, 斬內將軍賀婁氏於太極殿西.”

48) 『資治通鑑』 卷209, 景龍 4년(710) 6월 21일 “是日, 赦天下, 雲: 逆賊魁首已誅, 自餘支黨一無所問. 以臨淄王隆基爲平王, 兼知內外閑廐, 押左右廂萬騎. 薛崇暎賜爵立節王. 以鍾紹京守中書侍郎, 劉幽求守中書舍人, 並參知機務. 麻嗣宗行左金吾衛中郎將.”



혁명 주체들이 맡은 직책은 위와 같다. 종초경과 유유구는 비밀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룡기는 안팎의 말(馬)을 관리하는 겸지내외한구(兼知內外閑廐)직과 궁의 만기(萬騎)를 장악하였다. 혁명 하루 만에 그를 도왔던 만기(萬騎)가 직속 부하가 되었다.

710년 6월 위황후와 그 일파가 제거되고 예종(睿宗)이 복위하였고, 이룡기가 태자에 책봉되어 미래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고모 태평공주가 버티고 있었다. 조정을 지배하기를 원했던 공주는 곧 황태자가 강력한 적수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712년 8월 25일 황태자가 현종으로 즉위한 후에도 과반의 재상들과 우림군(羽林軍)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던 태평공주는 정변을 일으킬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 713년 7월 3일 태평공주의 거사 일이 다음 날인 4일로 잡혔다는 정보가 현종에게 들어왔다. 그날 바로 선제공격이 가해졌고, 태평공주의 세력은 제거되었다.<sup>49)</sup> 개원(開元治)의 시대가 열렸다.

49) 『舊唐書』卷7, 睿宗本紀. 『資治通鑑』卷210, 開元 元年(713) 6월 조 “六月, 丙辰… 太平公主依上皇之勢, 擅權用事, 與上有隙, 宰相七人, 五出其門. 文武之臣, 大半附之. 與竇懷貞·岑羲·蕭至忠·崔湜及太子少保薛稷·雍州長史新興王晉·左羽林大將軍常元楷·知右羽林將軍事李慈·左金吾將軍李欽·中書舍人李猷·右散騎常侍賈膺福·鴻臚卿唐駿及僧慧範等謀廢立.”

『資治通鑑』卷210, 開元 元年(713) 7월 3일 “秋, 七月, 魏知古告公主欲以是月四日作亂, 令元楷·慈以羽林兵突入武德殿, 懷貞·至忠·羲等於南牙舉兵應之. 上乃與岐王範·薛王業·郭元振及龍武將軍王毛仲·殿中少監薑皎·太仆少卿李令問·尚乘奉禦王守一·內給事高力士·果毅李守德等定計誅之.”

Denis Twitchett, 'Hsüan-tsung(reign 712-756)', 1979. p.336, pp.344-345.

## V. 맺음말

어린 시절 감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야 했던 이릉기(玄宗)가 어떻게 중국 역사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무엇이 그의 파란만장한 운명을 주도하였다는 말인가.

황궁은 죽음의 틀이었다. 그가 7세일 때였다. 693년 정월 2일 할머니 측천무후가 어머니 두씨(竇氏)를 죽였다. 시신도 찾지 못했다(『資治通鑑』長壽 2年 正月). 어린 그가 어머니를 찾다가 사실을 인지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고통과 분노 속에 흐느끼기만 했으리라. 그리고 집안 비극에 눈을 떴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인 675년 4월 백부 이홍(李弘: 추존 효경황제)이 할머니에게 독살되었고(『資治通鑑』上元 2년 4월), 683년 3월 둘째 백부 이현(李賢: 장희태자)이 유배지에서 그녀의 사주로 자살했다(『資治通鑑』光宅 元年 3월). 그리고 그가 15세이던 701년에 사촌인 이중윤(李重潤: 의덕태자)와 영태공주(永泰公主)가 할머니를 비난했다는 죄로 장살(杖殺)되었다(『資治通鑑』長安 元年 8월-9월). 당시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밀고로 죽임을 당하는 공포정치의 시대였고, 여기서 측천무후 자신이 낳은 아들과 손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무섭고 암울한 어린 시절에 이릉기는 격구에 몰입하여 모든 것을 잊으려 했다. 당의 민요에 “삼랑(三郎: 이릉기)은 소시적에 웃도 단정하게 입지 않고, 격구에 대한 미련으로 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었다.”라고 한다. 공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유희적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강한 욕구는 그를 격구의 고수로 만들었다.

그가 20세가 되던 해(705)에 정변으로 할머니 측천무후가 권좌에서 내려오고, 백부인 중종이 복위했다. 얼마 후 정변의 공신들은 무삼사와 손을 잡은 위황후 일파에 의해 밀려나거나 제거되었다. 그리고 위황후와 안락

공주 그리고 무삼사가 권력을 농단했다. 707년 7월에 초조해진 중종의 태자 이종준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피살되었다. 같은 해 8월 위황후 일파가 이릉기의 아버지 상왕(예종)을 모함했다. 하지만 신료들의 변호로 겨우 모면했고(『資治通鑑』景龍元年 8月), 708년 4월 이릉기와 그의 형제들은 견제를 받아 지방으로 내려가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역사 속에 큰 변화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겨나고 지워지지 않은 흔적을 남긴다. 710년 1월 13일 황궁 원내(苑內)의 격구장, 그곳에서 종친과 신하들을 대동한 황제가 토번 사절단을 위한 연회를 베풀었다. 토번의 단장은 자신의 부하 가운데 격구 선수가 있었다고 하면서 황제의 호위병(仗內: 북아군군의 만기)들과 시합을 제안했다. 그 자리에 얼마 전 상경한 25세의 이릉기도 있었다.

당과 평화 외교를 하러 온 토번 사절단에서 조차 격구 선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선수의 층이 두텁다는 것이고, 토번의 기병 전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당-토번 선수들 사이에 몇 판의 시합이 있었고, 토번 측이 모두 이겼다. 황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토번 사절단의 환호 속에서 패배한 당의 선수들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황제가 선수를 교체했다. 이릉기와 사곡왕 이용, 부마 양신교, 부마 무연수 등이 구원타자로 나섰다. 시합이 재개되고, 결정적인 시점에 이릉기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좌우로 바람(風)과 번개(電)같이 질주하였고, 아무도 그를 가로막지 못했다고 한다. 토번의 선수 모두를 스피드로 제압하는 그의 움직임과 스윙 동작은 모든 사람들을 격동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릉기는 토번 선수 10명이 도저히 못 따라오는 속도와 컨트롤·집중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의 침착한 골 결정력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리게 하고 본성과 영혼을 움직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골을 잡으면 점점 커지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골을 넣을 때 절정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당이 승리했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던 황제·대신들에게 힘을 주는 연료가 되었을 것이고, 초반 패배의 당사자였던 호위병(仗內)들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릉기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승리를 현실에서 구현한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만족을 얻었다.

그날 이릉기는 백부인 황제에게 비단을 상금으로 받았다. 명망도 올라갔다. 무엇보다 경기를 목도한 북아금군의 만기에게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반년 후 일어날 당룡정변을 고려할 때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다.

『신당서』를 보면 (709년 11월 23일) 남교제사 직전 지방에서 장안으로 돌아온 이후 이릉기는 시종 왕모중을 통해 만기(萬騎)의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시점은 그가 명망을 얻은 직후부터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릉기는 모두 갖춘 남자였다. 수려한 외모, 강한 몸, 결코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황족(皇族)의 혈통까지 타고났다. 그러한 자질에다 남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격구 선수로서 열정이 있었다. 시종인 왕모중의 위신도 주인을 따라 올라갔고, 만기(萬騎)의 병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중간 간부들과 접촉이 수월했을 것이다. 이릉기는 대리인 왕모중을 통해 그들에게 자금(金帛)과 음식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705년 정월 측천무후를 은퇴시킨 장간지(張柬之) 등의 정변은 만기(萬騎)를 완전히 손에 넣었기 때문에 성공하였고, 반대로 707년 7월 6일 이충준의 정변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만기(萬騎)의 마음을 얻는 것이 권력 장악의 핵심이었다.

710년 6월 2일 백부인 중종이 독살되자 이릉기의 앞날이 어두워졌다.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다. 위황후가 권력을 잡은 이상 이대로만 간다면 결국 그와 집안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만기(萬騎)의 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던 중간 간부들도 암울했다. 기존 만기(萬騎)의 지휘부를 갑자기 내쫓고 새로 사람들이 들어섰다. 황제의 서거 하루 만에 위황후파 사람들이 만기(萬騎)의 지도부에 등지를 틀었던 것이다. 머지않아 그들도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떠밀려갈 것 같았다.

6월 12일 기로에 선 그들이 이릉기를 찾았다. 위황후파 간부들이 군기를 잡기 위해 만기(萬騎)의 병사들을 자주 구타하며, 묶어놓고 채찍질까지 한다고 했다. 위왕후 일파에 대한 만기(萬騎)의 불만이 가득한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이릉기가 거사를 사주한 것이 아니라 만기의 중간 간부들이 이릉기를 지도자로 선택했다.

이릉기도 성공이나 실패를 논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조정의 군권과 모든 것을 장악한 위황후파는 시간이 갈수록 힘이 더 강해질 것이다. 지금 당장 존망을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6월 20일 밤 10시에 거사를 실행했다. 만기(萬騎)의 과의 갈복순 등이 칼을 들고 우림군영으로 들어가 위선·위파·고승의 목을 뺐다. 그는 병사들을 모아 놓고 위황후 일파가 종종 황제를 독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씨들을 주살하고, 이릉기의 아버지 상왕(睿宗)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릉기가 거사를 주도한다는 것을 인지한 군인들은 모두 동의했고, 현무문의 수비 병력들이 이릉기의 수중에 들어왔다. 그것은 그들이 이릉기를 기꺼이 따랐기에 가능했다.

갈복순은 좌만기(左萬騎)를 이끌고 가서 현덕문을, 이선부는 우만기(右萬騎)를 거느리고 백수문을 공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능연각 앞에서 합류하였다. 이릉기는 현무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밤 12시(三鼓)가 되어 함성을 듣고서 병사를 인솔하여 들어갔고, 내궁인 태극전에 근무하던 만기(萬騎) 병사들도 소리를 듣고 모두 혁명군에 호응하였다. 위황후와 그녀의 딸인 안락공주, 공주의 남편인 무연수, 여성 내장군(內將軍) 하루씨

등이 사살되었다.

만기(萬騎)의 협조로 별다른 저항이 없이 당릉정변은 성공했고, 이튿날 그들은 이릉기의 휘하에 편입되었다. 궁내부의 무력을 장악한 그는 태자가 되어 조정의 실권자가 되었고, 712년 현종으로 즉위하여 고모 태평공주와 그 일파를 제거하고 개원의 시대(開元의 治)를 열었다.

(2023.07.09. 투고 / 2023.07.31. 심사완료 / 2023.08.04. 게재확정)

[Abstract]

### Sports Star, Li Lung-chi becomes Emperor

Seo, Young Kyo · Kim, Eun-Jung

Emperor Hsüan Tsung(Li Lung-chi: 李隆基) of the Tang Dynasty had to be constantly monitored and even felt threatened with his life as a child. Then how did he become an emperor and what led to his fate. His grandmother, Empress Wu, was a sociopath who killed many people.

The Imperial Palace was the garden of death. When he was 7 years old. Grandmother Empress Wu killed his mother. No found a dead body. Although he was young, he recognized the truth while looking for his mother, and woke up to the tragedy of the family. Before he was born, his uncle Li Hung(李弘) was poisoned by his grandmother, and another uncle Li Hsien(李賢) was killed. When he was 15 years old, his cousins Li Ch'ung-jun(懿德太子) and Princess Yung T'ai(永泰公主) were beaten to death while criticizing their grandmother. At that time, it was an era of horror politics in which many of the court's officials lost their lives. Here, the sons and children born by the grandmother herself were no exception.

As a child, he was hooked on polo. He gained his freedom when riding a horse and playing polo with brothers. He forgot to go back to the palace because of Polo's charm. This made him a master of polo.

Big changes in history always come from unexpected places and leave an indelible mark. On 13 January 710, the palace's polo stadium,

where Emperor Zhongzong hosted a dinner for the Tibetan mission. The Tibetan leader said there was an excellent polo player among his men and suggested playing against the emperor's guard(萬騎). Li Lung-chi also attended the company dinner.

There were several rounds of matches between the emperor's players and the Tibetan players, and the Tibetan side won all. The emperor's face was not good enough. In the cheers of the Tibetans, the defeated players felt shame.

The emperor replaced the players. Li Lung-chi came out as a relief hitter. When the game resumed, he showed outstanding ability at a crucial point. He galloped left and right like the wind and lightning. His movements and swing, which overpowered all Tibetan players at speed, seem to have thrilled people.

He had the speed, control, and concentration that 10 Tibetan players couldn't keep up with, and his final goal-determining ability seems to have attracted people's attention. The loud cheers of the people who grew louder as he hit the goal and the final climax of the shout rang out as he scored. China has won.

It became a fuel for the emperor guards, who had been defeated in the beginning and had lost their morale. Li Lung-chi became a hero who realized a victory that people seemed impossible to achieve in reality. People were satisfied through him.

On that day, he received silk as a prize money from his uncle, the emperor. His reputation has gone up. Above all, his name was announced to the emperor's guards who witnessed his match. This is the most important fact considering the T'ang-lung coup(唐隆政變) that



will take place in six months.

Shortly after gaining fame as a sports star, he began to have close contact with middlemen of the emperor's guard. Li Lung-chi was a man with everything. He was born with a beautiful appearance, a strong body, and royal lineage. He also had a passion as a polo player that no one could overcome. He generously gave funds and food to the emperor's guards through his deputy Wang Mao Zhong(王毛仲).

On June 2, 710, Empress Wei poisoned the emperor(中宗). Li Lung-chi's future has darkened. The Empress came to power and if time goes by in this state, Li Lung-chi and his family are in danger. The emperor's guards were also grim. One day after the emperor's death, the empress took over the leadership of the guards.

On June 12, at the crossroads of choice, they met Li Lung-chi. The Empress's officials often beat up guards to catch military discipline. It is said that this is a golden Time for the coup to succeed when there are many complaints from the guards against the Empress Wei faction. Li Lung-chi did not order him, but the guards chose him.

Li Lung-chi also could not afford to discuss success or failure. The Empress Wei took control of everything in the court. As time goes by, her strength will grow stronger. He have no choice but to fight for his lives right now.

On June 20th, at 10 p.m., a big event took place. An imperial guard supporting Lee Rung-ki entered the military camp and killed the officials of the Empress Wei. They gathered the soldiers and revealed that the Empress had poisoned the emperor. Recognizing that Li Lung-chi was leading the coup, all the warriors agreed, and soldiers guarding

the northern gate(玄武門) of the imperial palace fell into his hands. It was possible because the soldiers respected him as Sports star

A bodyguard destroyed two doors of the royal palace and went inside. They joined in front of Neungyeongak and took control of the palace. Li Lung-chi, who was waiting outside the northern gate, heard a shout at 12 p.m. and led the soldiers into the palace, and all the guards inside the palace(太極殿 宿衛 萬騎) heard the sound and joined the revolutionary army. Empress Wei, Princess An-rak, the princess's husband, Mu Yeon-soo, and the female bodyguard Haru were shot dead.

Without much resistance, Li Lung-chi succeeded in a coup, and soon after, the emperor's guard(萬騎) was incorporated under him. Taking control of the force inside the palace, he became the crown prince and the real ruler of the court, ascended to the throne in 712, and opened the era of K'ai-yüan(開元治).

□ Keyword

Emperor Hsüan Tsung, Li Lung-chi, Empress Wei, Polo, Emperor's Guard, Wang Mao Zhong

[참고문헌]

『冊府元龜』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封氏聞見記』 『景龍文館記』 『文苑英華』 『隋唐嘉話』

金芝盈, 「『封氏聞見記』 試論 및 校釋 研究」, 연세대 중문과 석사논문, 2016.

金滸, 「우애와 자애로 포장된 통제-唐玄宗의 諸王 관리-」, 『인문연구』 101,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22.

남병근, 「기립마 인마일체를 위한 승마 역학적 분석」, 단국대 박사논문, 2005.  
方協邦, 「唐代體育의 歷史地位及影響」, 『青海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西寧: 青海師範大學, 1985.

潘孝偉, 「唐代體育動機與體育環境」, 『範學院學報』 社會科學版 第3期, 安慶: 師範學院, 1992.

范永聰, 「唐代球類運動探析」, 『中國史研究』 73, 중국사학회, 2011.

서영교, 『고대 동아시아 세계대전』, 글항아리, 2021[개정판] 저자후기.

閻守誠·吳宗國 (저), 임대희·우성민 (역), 『당현종』, 서경, 2012.

이시다 미키노스케 (저), 이동철·박은희 (역), 『장안의 봄』, 이산, 2004.

李新國, 「從《明皇擊球圖》看唐玄宗對馬球運動的喜愛」, 『蘭台世界』 36, 沈陽: 遼寧省檔案學會, 2014.

林伯原, 『中國古代體育史』, 臺北: 五洲出版社, 1996.

林琳, 「馬球的起源和唐代的馬球運動」, 『貴州文史叢刊』 第6期, 貴州: 省文史研究館, 2000.

張寶強·陳小龍·劉晶, 「試論唐代體育文化的開放性特徵」, 『咸陽師範學院學報』 23-2期, 咸陽: 師範學院, 2008.

左藤長, 「〈論說〉金城公主の入藏について」(上), 『史林』 39(1), 京都: 史學研究會, 1956.

- 鄭炳俊, 「吐蕃의 吐谷渾 併合과 大非川 戰鬪」, 『歷史學報』 218, 2013.
- 黃中安, 「論唐代的體育活動」, 『人文雜誌』 第5期, 西安: 陝西省社會科學院, 1990.
- 蔡美賢, 「初盛唐의 王府와 王宅 一考」, 『中國語文學論集』 47,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 C. P. Fitzgerald, *The Empress Wu*, London: The Cresset Press, 1968[1956].
-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Kao-tsung(649-683) and the Empress Wu',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Denis Twitchett, 'Hsüan-tsung(reign 712-756)'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Helmut Hoffman, 'Early and Medieval Tibet'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